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1/2/2022

22-02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백) 주님 공현 대축일

(Wh) The Epiphany of the Lord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They were overjoyed at seeing the star.”

마태 2,10 / Mt 2:10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월/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수/토 휴무 W/Sat Closed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군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울리나)	951-454-3182
경외	김(테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1월 / January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니다.

For true human fraternity

We pray for all those suffering from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may their own rights and dignity be recognized, which originate from bei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 human family.

주님 공현 대축일 (다해) / The Epiphany of the Lord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Behold, the Lord, the Mighty One, has come; and kingship is in his grasp, and power and dominion.

【제1독서/First Reading】 이사 60,1-6 / Is 60:1-6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시편 72(71),1-2,7-8,10-11,12-13(© 11) / Ps 72:1-2, 7-8, 10-11, 12-13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Lord, every nation on earth will adore you.

【제2독서 / Second Reading】 에페 3,2,3-5-6 / Eph 3:2-3a, 5-6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마태 2,2 / Mt 2:2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We saw his star at its rising and have come to do him homage.

【복음 / Gospel】 † 마태 2,1-12 / Mt 2,1-12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마태 2,2 / Mt 2:2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We have seen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with gifts to adore the Lord.

1/2 미사지향 (Mass Intention)

연미사(D): 이미카엘,김율리안나,이불케리아,이웅렬 요한,안요왕,
박바드리시아,양헬렌,이화순 카타리나,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김베드로,이종모 바드리시오,
윤애자 마리아,유안드레아,이수잔

생미사(L): 홍마리고레띠,박정대 그레고리,박정문 제임스,김리디아,김세례자 요한,김다니엘
오글로리아와저스틴,신모니카 가정,이도미틸라, 이미자 데레사 & 조앤 가정,김미카엘라

*** 오늘 미사지향을 12/23후 신청하신분들께는 1/9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의 의미

1. 기원과 유래

주님 공현 대축일의 기원은 오래 전 동방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에 예수의 탄생과 공현을 함께 기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참 빛임을 드러냈다. 2세기 초에는 동방 지역의 영지주의(靈智主義, Gnosticism)자들이 예수가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느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1월 6일에 예수의 세례를 기념했다. 하지만 이는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정통 신앙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동방교회는 이들 이단에 맞서 같은 날 예수의 세례를 기념하며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동방교회는 공현 축일에 예수의 세례도 함께 기념하고 있다. 서방교회가 주님 공현을 기념한 것은 4세기부터이며 동방교회의 공현 축일이 서방교회로 전파되면서 의미가 변화됐다. 오늘날과 같이 동방박사들이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온 것을 기념한 것이다.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탄생에 '이방 민족들 모두에게 드러내 보이셨다'(공현·Epiphania·公現)는 의미가 강조됐다. 여기에 '예수의 세례'와 '카나의 첫 기적'을 덧붙여 기념했다. 1960년에 이르러, 부활 시기가 '성령강림 대축일'로 완성되는 것과 같이 '주님 세례 축일'을 성탄 시기의 성령강림이라는 차원에서 따로 설정해 지내도록 했다. 곧 공현 축일과 세례 축일이 분리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 공현 대축일은 1월 6일에 기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교우가 이날을 경축하도록 1월 1일 다음에 오는 주일에 지낸다.

2. 전례

이날 전례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널리 계시됐다는 주제를 갖는다. 제1독서(이사 60,1-6)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일 것이라는 희망을 예견한 이사야서를 봉독한다. 시간 전례에서도 같은 내용을 읽고 복음에서도 반복하며 이스라엘을 넘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마태 2,6) 같은 맥락에서 제2독서를 통해 사도 바오로는 자신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약속의 상속자가 됨을 밝힌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에페 3,5-6) 즉 구약의 독서를 통해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신약에 와서 유다인들에게 약속된 복음 선포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곧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베들레헴의 별빛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갖가지 어둠 속에서 구원을 염원하는 모든 이를 위한 빛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3. 이방인들의 대표, 동방박사

하느님은 세상의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선민(選民)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교회의 구원관은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인해 이방 민족들의 구원에까지 확장됐다.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비취지게 되는 것이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오 복음서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을 '마고이'(magoi, 단수 마고스(magos)의 복수)라고 표현한다. 현자 또는 꿈의 해석자라는 뜻인 이 용어는 후에 점술이나 마술 등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일반화됐다. 예수 활동 당시에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성향을 지닌 이들과 사기꾼 마술가로 구분됐는데, 마태오 복음사가는 천문학적 지식을 지니고 있던 이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사용했다. 한편, 서방교회의 첫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마고스'를 왕이라 설명했고, 6세기 유럽에서는 이런 전통을 계승하고 보완해 '마고스'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후 발타사르, 멜키오르, 가스발이라는 삼왕의 이름까지 붙여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복음에서는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태 2,11)고 전한다. 동방박사를 다룬 많은 작품들에서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마태오 복음서에는 숫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가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기록에 준해서 이들의 숫자를 셋이라고 간주했다.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3'은 이들 동방박사가 전체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동방박사의 예물봉헌은 임금께 드리는 경의의 표현이며, 이들이 가져 온 선물은 그리스도 신비의 세 가지 요소를 가리킨다. 황금은 만왕의 왕인 예수의 왕권을, 유향은 대사제로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몰약은 장례예식에 쓴 약물로 예수 수난의 신비를 의미한다. 세 가지 봉헌물은 당시 이방인들이 태양신에게 바치는 예물이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 떠오른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빛을 따라서

구세주 탄생을 알아보고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은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큰 의미를 지닌다. "동방박사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관찰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에게 줄 선물을 갖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위험에 대한 공포와 자기만족, 인생에서 무엇인가 더 찾지 않으려는 나태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8년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에서 한 강론 내용이다. 교황은 2019년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 강론에서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여정을 시작해야 하며 선택의 길, 그분의 길, 겸손한 사랑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여정 안에서 가난한 베들레헴의 빛나는 별을 찾아 떠날 용기를 지녀야함을 시사한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마태 2,11-12)

참조: 평화신문

Solemnity of the Epiphany of the Lord



“Epiphany” means manifestation. And the “Epiphany of the Lord” is Jesus’ manifestation not only to these three Magi from the East, but it’s also a symbolic but real manifestation of the Christ to the whole world. These Magi, traveling from a foreign and non-Jewish nation, reveal that Jesus came for all people and all are called to adore Him.

These Magi were “wise men” who studied the stars and were aware of the Jewish belief that a Messiah was coming. They would have been versed in much of the wisdom of the day and would have been intrigued by the Jewish belief in the Messiah.

God used what they were familiar with to call them to adore the Christ. He used a star. They understood the stars and when they saw this new and unique star over Bethlehem they realized that something special was happening. So the first lesson we take from this for our own lives is that God will use what is familiar to us to call us to Himself. Look for the “star” that God is using to call you. It’s closer than you may think.

A second thing to note is that the Magi fell prostrate before the Christ Child. They laid their lives down before Him in complete surrender and adoration. They set a perfect example for us. If these astrologers from a foreign land could come and adore Christ in such a profound way, we must do the same. Perhaps you could try literally lying down prostrate in prayer this day, in imitation of the Magi, or at least do so in your heart through prayer. Adore Him with a complete surrender of your life.

Lastly, the Magi bring gold, frankincense, and myrrh. These three gifts, presented to our Lord, show that they acknowledged this Child as the Divine King who would die to save us from sin. Gold is for a King, frankincense is a burnt offering to God, and myrrh is used for one who would die. Thus, their adoration is grounded in the truths of who this Child is. If we are to adore Christ properly, we must also honor Him in this threefold way.

Reflect, today, upon these Magi and see them as a symbol of what you are called to do. You are called from the foreign place of this world to seek out the Messiah. What is God using to call you to Himself? When you discover Him, do not hesitate to acknowledge the full truth of who He is, lying prostrate before Him in complete and humble submission.

San Bernardino 로하스 주교님 성탄 메세지
God's love is among us: A Christmas message from Bishop Rojas

Dear sisters and brothers,

Peace and wellbeing to you and to your loved ones. I'm praying that all of you will have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full of abundant blessings!

Our Advent journey of prayer, reflection and waiting in anticipation have prepared us to receive the tenderness of baby Jesus' love into our hearts this Christmas. Once again, we are given an opportunity to reflect and ask ourselves how much we have welcomed Jesus in our lives. As people would ask John the Baptist, what should we do to prepare ourselves better to welcome Jesus, we also ask ourselves.

Many homes are lighted up with beautiful decorations and twinkling colorful lights. Millions of Christmas cards with beautiful words are being sent these days across the world. Children are excited and anxious; they can hardly wait to open their gifts with beautiful shiny eyes and joyful smiles. All these are priceless moments and wonderful signs of something greater and holier.

I would like it to be all about God's love among us. Our "Emmanuel," God with us, has truly been with us. Even when sometimes we may not think of Jesus' presence in our midst, we know that God gave us the gift of his Son so that we may be able to know who we are, enjoy and appreciate the gift of our lives while on earth and in the end have salvation. This is still the greatest Christmas gift of all times!

Dear friends, during this sacred time and throughout the new year, may we remember to constantly welcome Christ through prayer and selfless acts of service to others, especially to those most in need. I wish you a joyful Christmas celebration with your families and a blessed New Year, full of loving moments and lasting peace. Please know that you are always in my heart and prayers.

All peace and blessings to you! Feliz Navidad!



본당소식 / Parish News

- ◆ 2022 신협서 / 2022 Pledge Card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통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submit at front of church lobby.
- ◆ 사무실 휴무 (Office Closed)
기간: 12/24 - 1/2
- ◆ 1/4 ~ 2/7 본당 신부님 비자 갱신 및 휴가
이 기간 동안에는 MSC 한국관구에서 김준정 리처드 신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김바오로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Fr. Paul Kim will be traveling to Korea for visa renewal, please keep him in your prayers.
- ◆ 성시간 (Holy Hour)
일시(Date&Time): 1/7(금/Fri) 8pm
- ◆ 첫 토요일 신심미사(1st Saturday Devotion)
일시(Date&Time): 1/8(토/Sat) 10am
- ◆ 주보 광고 모집 / Bulletin Ad
교우분들중 주보 광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Anyone who wants to sponsor bulletin ads, please contact the office.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기도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상라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Pope's Prayer to Mary during coronavirus pandemic

O Mary, You always shine on our path as a sign of salvation and of hope.

We entrust ourselves to you, Health of Sick, who at the cross took part in Jesus' pain, keeping your faith firm.

You, Salvation of the Roman People, know what we need, and we are sure you will provide so that, as in Cana of Galilee, we may return to joy and to feasting after this time of trial.

Help us, Mother of Divine Love, to conform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to do as we are told by Jesus, who has taken upon himself our sufferings and carried our sorrows to lead us, through the cross, to the joy of the resurrection. Amen

Under your protection, we seek refuge, Holy Mother of God. Do not disdain the entreaties of we who are in trial, but deliver us from every danger, O glorious and blessed Virgin.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12/24 ~ 1/2 우리들의 정성은
1/9 주보에 공지됩니다.
Our contributions from 12/24 ~ 1/2
will be published on 1/9 bulletin.



- ◆ There's no Sunday School today.
-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